

## 이런 두통도 있어!

(정신 질환과 관련된 두통)

심한 두통이 조울증이나 정신 분열병 등 정신 질환이 시작하는 시점에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물론 일부 성격상 긴장성 두통과 같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전위가 정신 질환이라는 점에서 특히 구분 지어 보고자 한다. 이럴 때 나타나는 두통은 기분의 저하(depressed mood)와도 직접 관련이 있다.

후일 조울증의 조증 상태(躁症 狀態)로 병원에 응급 입원하게 되는 P양의 경우 확연히 눈에 띄고 말로써 통제가 불가능한 조증 상태가 되기 보름 전부터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고 기력이 없는 증상이 시작되었다.

P양의 부모는 약국에 가서 진통제를 사 먹여 보기도 하고 가까운 내과에서 진찰을 받도록 하기도 하였다. 내과 의사는 “아마도 신경성인 듯하다”며 진통제를 주고 꼭 쉬도록 권유하였다. 그렇지만 후일 그 두통이 없어질 즈음해서 환자는 말이 많아지고 우쭐거리며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곧잘 싸움질을 하려고만 드는 조증이 시작되어 버렸다.

여기서 잘 살펴보아야 했던 것은 그녀가 심한 두통을 앓을 때 두통 뿐 아니라 식욕의 감퇴, 불면증, 또는 허무한 느낌과 사소한 과거사(過去事)의 적나라한 회상이 동반되고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자신의 신체 한탄과 함께 판단력에 장애가 동반된 ‘조증 전 우울 상태’였다. 여기서 ‘두통’은 하나의 대표 증상이었을 뿐이다.

J군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고 하며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여 부모가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그런 두통을 설명할 만한 어떤 신체적인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혹시나 하여 찍은 뇌 단층 촬영에서도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담당 의사는 J군을 안심시키고 격려하기 위해 면담하였다가 그만 깜짝 놀라 부모를 설득하여 신경 정신과로 가도록 권유하였다.

J군은 “사진이 정상으로 나왔다니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니 이 말을 이상하게 여긴 담당 의사의 추궁에 “솔직히 말하면 내 뇌는 이미 썩었다. 두 달 전에는 뇌 속 깊은 곳에

벌레가 들어가서 뇌수를 갉아먹었다. 나는 그 때 그 벌레가 꿈틀거리는 느낌을 받았으며, 지금은 끊어질 듯한 통증을 느낀다. 더 솔직히 말하면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말 같잖은 소리를 했다는 것이다.

J군은 말하자면 일종의 신체 망상(身體妄想)과 피해 망상(被害妄想)을 느끼는 분열병 상태였던 것이다. 그는 뇌와 관련된 환각 상태를 호소하고자 하였음이 분명하고 그것은 말로만 두통의 형태였을 뿐 실제로는 두통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J군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환청과 대화를 하며 급격한 감정의 기복을 보이고 밤에 잠을 못 이루어 설쳐대다가 신경 정신과에 응급 입원을 하게 되었다.

K군은 대학을 졸업한 후 어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형편없는 성적으로 낙방해 버렸다. 그 동안 걱정 말라며 부모님께 큰소리를 쳤던 체면은 그냥 땅바닥에 곤두박질해 버렸다.

이튿날부터 주체할 수 없는 두통이 밀려왔다. 어떤 의원을 찾았더니 “젊은 사람이 배포도 없이 그딴 일 가지고 난리를 피운다”며 되레 핀잔을 주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 두통은 시간이 가면서 이상하게도 불안감으로 바뀌었는데, 그 후에는 “매스컴에서 온통 나에 대해 비난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변했다. 두통은 지극히 미분화(未分化)된 환청과 관계 망상으로 변했다가 급기야는 자기를 대놓고 비난하는 확실한 힘을 가진 세력으로 변해 버렸던 것이다. 그는 급성 정신병 상태에 빠져 들어갔다.

외부의 자극이 접수되거나 새로운 사고(思考)가 생성되는 관문인 뇌(腦)에 생기는 갈등은 일차적으로 두통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일시적인 두통을 보이다 소실되던가, 만성적인 두통으로 왔다갔다 하던가, 아니면 다른 구체적인 질병 과정을 따라 이행하던가 하여 증상(性狀)을 달리한다. 그러므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는 환자가 두통을 호소할 때 그것이 어디로 비화될 것인지 예측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